



일주문



호국비룡사에 금일봉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은 21일 비룡부대와 호국비룡사를 방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군불교발전을 위한 금일봉을 전달했다.



관악구청장 감사장 받아

성초 진각종 남부심인당 주교는 관악구 구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4일 김희철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교회서 예수탄생 축하법문

정각 부산 미륵사 주지는 크리스마스 맞아 24일 도시민교회와 시온중앙감리교회에서 예수탄생을 축하하는 법문을 했다.



소년가장·노인에 성금

도원 부산 삼광사 주지는 14일 동지맞이 이웃돕기 하루차집을 열고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노인 30명에게 쌀과 성금을 전달했다.



남구노인회관 송년행사

종선 울산 남구노인복지회관 관장은 21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송년행사를 갖고 공로상 시상식을 갖고 문화 공연을 펼쳤다.



교육방송서 '자비' 강연

성관 수원포교당 주지는 교육방송 연말연시 특집프로그램 '사랑과 평화, 자비의 메시지'에 출연했다. 1월 2-3일 오전 10시 방송.



독거노인 등에 쌀 전달

법경 서울 능인정사 주지는 22일 서울 성동구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95가구에 쌀 95포대를 전달했다.



생명나눔회에 후원금

보광 소담도예연구소 소장은 17일 '난치병 어린이 돕기 선 도예전' 판매수익금을 생명나눔실천회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외국기업의날 동참훈장

명호근 쌍용양회 사장은 18일 한국외국기업협회 주최 제1회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동참산업훈장을 받았다.



부신구치소에 경전 전달

박수관 부산 범어사 신도회 회장은 연말을 맞아 부신구치소에 불교 생활경전과 교양책자 200권을 기증했다.

인도북부 불교개종물결 확산



이지은 동신원 인도 델리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델리를 중심으로 한 북인도 지방 곳곳에서 힌두교에서 불교로의 개종식이 잇달아 거행되고 있다.



인도 북부지방에서도 힌두교도들의 불교로의 개종식이 잇달아 열리는 등 불교불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모든 불자들을 돕는 모임(BMSG)' 참선센터에서 임정중인 불자들.

힌두교 대상 포교역점

매회 500~2000여 불자탄생

이 행사를 주최한 로드붓다클럽의 전국대표인 우디프 라즈씨는 신문에 보도된 것이 외도 11월 4일 델리의 대 개종 이후 우따르 프라데쉬주의 볼란드 사하르(Buland Shahar), 사하바드(Shahabad), 데일리(Deiry)와 비하르 주의 빠르나(Patna), 그리고 델리에서도 각각 개종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들 개종 행사에서는 매년 500여명에서 2000명 사이의 새로운 불자들이 탄생했다. 또한 로드붓다클럽

은 23일 빠르나에서도 개종식을 갖는 등 북인도 지방의 개종의 물결은 당분간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보드갸아에서는 현지의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내년 부처님 오신날에 대규모의 개종행사를 갖고자 인근 지역의 힌두교도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편 세계 힌두교도 연맹을 비롯한 힌두 원리주의 단체들의 조직적인 방해는 그치지 않고 있으며, 보드갸아와 칸푸르 등지에서는 불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국토 그리며 송구영신...

대한불교 역사선원장 객대일법사(사진)가 '달마도'를 본지에 보내왔다. 객법사가 그린 '달마'는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특선, 서예예술대전 입선, 일본 동경국제 서화대전 준대상 등 각 대회에서 수상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지원금 전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8일 여성노숙자 시설인 화엄동산소장 김기혜 사신원장을 방문, 5백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재단은 '우리는선우'에서 운영하는 화엄동산에 이어, 자양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서울), 함께하는 마을출산, 보리수 마을대구, 육군 제24사단 70연대 호국적성사 등에도 지원금을 전달했다.



동국학원 합동 수계 대법회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스님)은 17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동국학원 초·중·고등학교 합동 수계대법회'를 가졌다. 녹원 스님이 전계사로, 도원 스님(동국학원 이사)이 교수사로 진행된 수계대법회에는 동국학원 신하 은석초등학교, 동대부중·고, 명성여중·고 학생 874명과 학부모 40명 등 모두 914명이 계를 받았다.



과천 공불련 법장스님 초청 송년법회

과천청사공무원불자연합회는 14일 청사 3, 4동 지하대회의실에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 초청 송년대법회'를 병행했다. 이날 건설교통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5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 및 가족 2백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불교인의 자세'를 주제로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범어사 금정복지관 운영

노인주간보호센터도 맡아

범어사의 복지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사회복지법인 범어사가 금정복지관과 부설 금정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운영자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사회복지법인 범어사가 지난 7일 금정구청과 위탁약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대지 13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를 갖춘 금정복지관은 부처님의 동체대비의 정신과



부산 금정복지관 전경. 서원을 사회복지증진을 통해 실현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앞으로 범어사는 직업훈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문제 등 25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태고종 종권수호위 상설화

분규사찰 문제등 해결

태고종은 지난 83회 정기중앙총회에서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종권수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총무원에 '한국불교 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위원장에 대운스님(전 총무원 부원장)을 임명했다. 부위원장(상임위원장)에는 자월스님(제도개혁추진위원회

상임추진위원장)이 임명됐다. 태고종 종권수호위는 조계종과의 분규사찰 해결을 위한 지원활동과 함께 태고종의 종권을 확립하기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펴나간다. 한편 태고종 종권수호위는 조계종이 지난 10월 신촌 봉원사의 등기를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가 이 불상을 유지하는 영예를 맡아 줄 것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 불상은 선양시 전통 중심가에 있는 추이화러우 보석상에 안치될 예정이다. 김정경 기자

중고단체후원 소포품 개설

진주불교회관, 대한감로심장회 등 경남 진주지역 종교·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인터넷소포품이 개설됐다. (주)다산컴퓨터는 15일 진주지역 7개 시민단체들과 진주지역 시민단체 후원 인터넷소포품(www.gibmall.com) 합작식을 갖고 이날부터 시민들이 이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이윤 중

70%를 이들 단체에 기부형식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특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經藥也 (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백박사)

■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2201-3333

니르바나님은 내 맘속에 있다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이 책은 다석사상에 입각하여 불교의 대표적 경전 '반야심경'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고 풀이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석의 종교다원주의적 관점과 비교종교학적 관점에서 반야심경을 '성경' 등과 비교해 해설을 붙여 놓았다. 저자는 각자 맘속에 있는 니르바나님을 깨닫고 그것에 의지해 '일나' (法身, 영적인 나)를 찾아 참다운 자아에 이를 때 절대세계와 하나가 되어 생사(生死)를 넘어서는 참다운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박영호 지음 / 408면 / 15,000원 / 양장

다석(多少) 류영모(柳永模, 1890-1981)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박영호 지음 / 408면 / 15,000원

노자(빛으로 쓴 업의 노래)
이광수, 최남선, 김교신까지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다석의 노자 '도덕경' 풀이.
박영호 지음 / 408면 / 12,000원

장자(자유에 이르는 길)
어찌보면 꼭 알아야 할 보배로운 경전, 장자의 우장하고 심오한 사상을 명쾌하게 풀이했다.
박영호 지음 / 463면 / 12,000원

두레의 다사상전집
1 2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상·하) 3 다석 류영모 본 예수와 기독교 4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5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6 다석사상으로 본 유교(근간) 7 다석 류영모 어록(근간) 8 다석 류영모 강의록(근간)

도서출판 두레 전화: (02)702-2119 팩스: (02)715-9420